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 추석 위령 미사

9월 23일(일) 추석 합동 제사 및 위령 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윤모니카 회장님이나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추석 잔치 안내

9월 23일 미사 후 추석 잔치가 있습니다. 추석 잔치에 노래 및 장기자랑 대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출전을 원하시는 분은 곡명과 함께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 초대합니다

열린 기도회가 1주년을 맞아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9일(수) 오후 6시 30분에 기도회가 소성당에서 있으며 7시 30분에 저녁식사가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요가반 가을학기 수강 신청

일시 : 9월 10일(월) - 12월 10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성당홀(친교실) 수강료 : \$30(3개월)

준비물 : 요가 매트, 간편한 운동복 차림

접수 : 문혜숙 베로니카

###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그리고 장석영 요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 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 전시회(The Half)

권명자 율리안나 자매님의 미술 전시회가 9월 1일(토)부터 29일(토)까지 체리힐 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푸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글로리아 구역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로사리아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82번 주 찬미
제1독서	여호수아기 24, 1-2 가. 15-17. 18 나 다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2독서	에페소서 5, 21-32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 요한 6, 60 나 - 69
봉헌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성체성가	182번 신묘하온 이 영적
퇴장성가	15번 주님을 찬미하라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1주일 8월 26일	연중 제22주일 9월 2일	연중 제23주일 9월 9일
제1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제2독서	김희동 프란치스코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친교봉사	성모회		

# 오늘의 묵상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복음과 비슷한 상황이나 질문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과 진리,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기가 힘들 때, 미사에 참여하는 것에 싫증이 날 때,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충실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악이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할 때, 의혹과 불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떤 하느님을 따르거나 어떤 신을 경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그분을 두고 떠납니까?

복음의 가르침이 딱딱하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참아 낼 수 없을 듯할 때, “누가 이 모든 것을 생활 규범으로 바꿔 놓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단지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고 나는 둘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우리는 갖가지 신들과 통치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 쾌락과 성, 교만과 이기주의, 허영과 아름다움, 번영과 소비주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생명의 말씀을 주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삶 안에서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 주고, 만족시켜 주고, 실현해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복잡한 가운데 개개인은 오늘날 자주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안팎으로 긴장에 눌러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분,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없이 저물지 않는 충만한 삶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다른 신들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2분 교리

## 화살기도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매달리듯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하고 짧게 올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등 단순하게 마치 화살을 쏘아 올리듯 순간순간 주님께 자유롭고 짧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 오늘의 미사지향

##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19일(일) >

봉헌금	\$487.00
미사예물	\$130.00
매일 미사책 판매금	\$100.00
<b>Total</b>	<b>\$717.00</b>